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4. 0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 간 사

지속가능사회, 지속가능지구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인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대한민국도, 서울특별시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한 인류사적 고민에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통하여 세심하고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서울시의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 및 향후 과제 등을 담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여 이를 서울시민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함양하고 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 조례가 규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UN SDGs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립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하에서 구축된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 지속가능발전 평가 동향, 목적, 방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2년(2022년~2023년) 간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 및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평가에서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등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석한 평가 결과를 총괄적으로 분석 및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정리 및 소개합니다.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의 핵심 원칙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향후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2022년도 70.0%, 2023년도 69.5%를 보이며 다소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 분야의 경우 증가, 경제 분야의 경우 유지, 환경과 협력 분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행사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부 사업과 성과지표들을 심층 재검토하여 203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부적합한 이행사업이나 성과지표의 재설정, 목표치 상향 또는 현실화 등 평가 기준의 검토와 함께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서울시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서울 SDGs 2030'이 조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등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고, 이행계획을 평가하기 시작한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관한 한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 이행사업의 203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 경험이 자치구, 기업, 및 시민들에게 전파되어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서울시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지구적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출범했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울시가 지속가능 글로벌 리더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보다 더 꼼꼼하고 정밀하게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모든 사업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을 포함하는 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지속가능발전 확산 활동 등 서울시 기본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왔고 개별 국가와 개별 도시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거대 계획과 세부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동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UN이 있었지만, 현장에는 주요 도시들과 헌신적인 주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동행 공동체 역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류가 지속가능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세부 이행계획을 살피고 컨설팅하면서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끝으로 사명감을 갖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 내어 보고서 발간 등 각종 집필 작업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애써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6월

제5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영

[목차]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	1
1.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평가 동향	1
1.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목적 및 방법	3
1.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주요내용	5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과제별 평가	8
2.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8
2.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	19
2.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27
2.4	함께 만드는 서울	38
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결과 요약 및 향후과제	46
3.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 요약	46
3.2	향후과제	58
4.	결어	66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

1.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평가 동향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해 현재 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한다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뜻한다.

국가와 지방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1992년 UN 리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의제21>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합의하면서부터이다. 2002년 리우+10 회의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 평가를 강조하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지방행동21>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2012년 UN 리우+20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UN 주요 그룹¹⁾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에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목표로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수립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가 환경부로 변경되었다.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이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방정부 확산이 본격화되었다.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복원 그리고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시행령」 수립을 기점으로 관련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으며 탄소중립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이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에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시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를 기획조정실로 정하였고, 2013년 5월에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기구로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17년 1월에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강화와 통합 평가체

1) 여성, 청소년, 원주민, 민간단체, 지방정부, 노동조합, 산업계, 과학계, 농촌으로 이루어진 9개 주요 그룹

계의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서울시는 2015년에 수립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제 및 국가적 목표 체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작성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0~2024)과 이행계획(2020~2024)을 2020년 12월에 수립하였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과 4대 전략, 17대 과제,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과 108개 성과지표를 담고 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주요 추진실적

□ 2021년 추진실적

- '21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21.3월
- 자치구(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지원 및 협력: '21.7월
- 자치구(서대문구) 비전 선포식 개최 및 보고서 제작 협력: '21.11월
- 지속가능한 서울시 ESG 정책토론회 개최 협력: '21.11월

□ 2022년 추진실적

-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영상): '22.3월
- '22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22.4월
-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토론회 개최: '22.4월
- 제2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22.6월
-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22.12월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22.12월

□ 2023년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제정: '23.5월
-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22년 실적 점검: ~'23.12월
- '23년 수립 예정 중장기 행정계획 6개 지속가능성 검토 및 회신: ~'23.12월
- 지속가능발전 환경, 사회, 경제, 협력 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23.4월, 6월, 9월, 12월

□ 2024년 추진실적

- '24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24.2월
-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4.3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2년에 한 번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2020년과 2021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2022년에 시행되었고, 그 내용이 2022년 6월에 제2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번에는 2022년과 2023년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3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1.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목적 및 방법

1.1.1. 평가목적

본 보고서는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와 기본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핵심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사회·경제적 불평등, 보건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서 지속가능성이 서울시정의 원칙이 되어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향후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사례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목표1 : 서울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진단을 위한 변화 양상 파악
- 목표2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제고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
- 목표3 : 서울시 행정부서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 내재

1.1.2. 방법 및 특징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8조 및 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평가는 크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서울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짚어보는 것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것 두 가지로 구성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4대 전략, 97개 이행과제, 106개 이행사업, 108개 성과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지표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각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요소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되어 있으며, 이 지표 값의 목표 달성 여부와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지표평가이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평가는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따라 서울시 실·국별로 추진한 많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어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성이 내재화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²⁾에 따라 4대 전략 97개 이행과제에 대한 106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각 사업별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다음 표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평가하는 세부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달성 예) 22년 50%, 23년 50%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22년에 100%를 전부 달성한 경우에 23년 실적이 없어도 달성으로 간주 ✓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완료한 경우 예) 타당한 사유로 사업 A를 사업 B로 변경하여 달성 <li style="padding-left: 20px;">타당한 사유로 A와 B의 별도 지표를 A지표로 통합하여 관리하여 달성 	
일부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연 및 중단의 경우, 제반 상황 및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50% 이상 100% 미만 달성 예) 중앙정부 승인절차 지연,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지연, 돌발 상황 발생 등
미 달 성		50% 미만 달성 예) 22년, 23년 실적산출 불가, 정상 추진 중, 예산미확보로 사업 종료, 사업비 과다로 중단 등

- 상승해야 하는 수치의 달성률 계산법 = 실적치/목표치 * 100
- 내려가야 하는 수치의 달성률 계산법 = [1-(실적치-목표치)/목표치]

1.1.3. 주요내용

본 보고서는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집필 및 검토진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2022~2023년 실적
- 내용 : 지표별 달성률, 주요 과제 지속가능성 점검 및 향후 과제
- 과정 : 지표별 실적 수집 → 지표평가 → 의견수렴 →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목표 기간이 2020~2024년으로 본 보고서는 후반에 해당하는 2022~2023년을 대상으로 각 담당 부서의 실적치를 제공 받아 작성하였다. 지표별 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종합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 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본 보고서에서 '이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2020.12)'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개정(2022.12)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을 알린다. 두 용어의 개념적 차이는 크게 없으나 개정된 조례와 관련해서는 변경된 '추진계획'으로 사용, 기존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상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행계획'으로 사용함

1.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주요 내용

1.3.1. 제2차 기본계획

- 구조 : 4대 전략, 17대 과제,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사업, 108개 성과지표

목표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			
4대 전략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함께 만드는 서울
17대 과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역점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역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역점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역점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역점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역량 강화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이행과제	26개 이행과제	18개 이행과제	30개 이행과제	23개 이행과제
세부사업	27개 세부사업	24개 세부사업	31개 세부사업	24개 세부사업
성과지표	28개 성과지표	24개 성과지표	32개 성과지표	24개 성과지표

※ 17대 과제 : UN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체계에 서울의 특색 반영('17.11월/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5대 역점과제 : 서울시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19.4월/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3.2. 제2차 이행계획

4대 전략	총 17대 과제	이행과제 (총 97개)	세부사업 (총 106개)	성과지표 (총 108개)
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1-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4개	4개	4개
	1-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3개	3개	4개
	1-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역점	9개	9개	9개
	1-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6개	7개	7개
	1-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4개	4개	4개
2.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2-1.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4개	7개	7개
	2-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역점	7개	9개	9개
	2-3.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3개	4개	4개
	2-4.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역점	4개	4개	4개
3.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6개	6개	7개
	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9개	9개	9개
	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역점	6개	7개	7개
	3-4.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3개	3개	3개
	3-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6개	6개	6개
4. 함께 만드는 서울	4-1.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역점	8개	8개	8개
	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9개	10개	10개
	4-3.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6개	6개	6개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과제별 평가

2.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2.1.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4.4/ 2.65	4.5/ 2.67	달성 (166)	달성 (168.5)	2.75% ↗
2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인원	6,170/ 6,100	6,332/ 6,400	달성 (101.1)	일부달성 (98.9)	7,260 명 ↘
3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금융복지 상담건수(건)	29,927/ 24,500	32,907/ 24,750	달성 (122.2)	달성 (133)	26,000 건 ↗
4	서울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 나간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가구)	20,841/ 35,000	21,672/ 40,000	일부달성 (59.5)	일부달성 (54.2)	70,000 가구 ↘

-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의 이행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와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과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과 2023년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4개 지표 모두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 4가지 성과지표 중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지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과 금융복지 상담 건수이다. 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3) 달성 추세는 달성률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목표치 대비 100% 달성하였다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달성률이 증가하면 ↗, 변동이 없으면 -, 그리고 감소하면 ↘로 표시함. 달성률 추세는 목표치와 실적치가 증가하고 목표 달성을 했더라도 달성률이 하락하면 추세선은 ↘로 표시되고 목표 달성을 못 했더라도 달성률이 증가하면 추세선은 ↗로 표시되는 등 실질적 이행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이행과제에서 성과를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대안으로 실적치를 기반으로 한 추세 분석이 있는데 이 경우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적이 증가하면 추세선이 ↗로 표시되어 목표 달성 노력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은 2030년 2.7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2년 4.4%, 2023년 4.5%를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2030년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은 2030년 7,26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 실적은 6,332명으로서 목표 수준인 6,400명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으며, 2023년 목표 달성률은 98.9%로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2.2% 포인트 감소하였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 완화 및 예산 증가 등의 변수에 따라 당해연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실적치 또한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하는 등 서울시 자체의 예산 편성 및 소득 기준을 마련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금융복지 상담건수는 2030년 26,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2년 29,927명, 2023년 32,907명을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2030년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복지 수요를 의미하는 지표로서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급 면에서 실제로 금융복지 혜택을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예시: 금융복지 연계 서비스 참여자 수 등). 또한 금융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일자리)까지 연계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2023년 목표인 40,000가구에 못 미칠 뿐 아니라 2023년 목표 달성률도 54.2%로서 낮으며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5.3% 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2030년 목표인 70,000가구에 비해서 목표 대비 실적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1.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 목표치	23년 실적치/ 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5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	서울 먹거리 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및 먹거리 거버넌스 추진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수립완료/ 22년 이행계획 수립	수립완료/ 23년 이행계획 수립	달성	달성	계속 추진 -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	8/ 8	4/ 7	달성 (100)	일부달성 (57.1)	계속 추진 ↘
6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	5,247/ 5,500	5,536/ 5,500	일부달성 (95.4)	달성 (100.7)	5,500 명 ↗
			도시텃밭 조성면적(ha)	221/ 225	222/ 232	일부달성 (98.2)	일부달성 (95.7)	260ha ↘
7	지방 농수산물 생산자와의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소규모 식량 생산은 물론 빈곤 및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지원한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운영	도시텃밭 조성면적(ha)	221/ 225	222/ 232	일부달성 (98.2)	일부달성 (95.7)	260ha ↘

-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의 이행을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3개의 이행사업, 4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정성지표에 해당하는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은 2년 연속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3개 정량지표의 달성률 추세를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 지표는 상향,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와 도시텃밭 조성면적(ha)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과 도시텃밭 조성면적(ha)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에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는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 3가지 정량 성과지표 중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의 목표 달성률은 '22년 95.4%이었으나, '23년에는 100.7%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반면,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 도시텃밭 조성면적(ha)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은 정성적인 성과지표로서 2022~2030년까지 매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조례 제8614호, 2023. 3. 27., 일부개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가 명문 규정한 사항으로서 자치법령에 따른 지속된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성과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보다는 동 조례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의 결과로서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개수" 또는 제15조(실태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서울형 먹거리 정책 만족도", 또는 제20조(교육 및 홍보)의 결과로서 "먹거리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참여율" 등으로 성과지표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는 2023년 목표인 7회에 못 미칠 뿐 아니라 '23년 목표 달성률도 57.1%로서 현저히 낮으며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42.9%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년 대비 실적보다도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자세하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명문 규정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과지표로서 관리하는 게 적절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성과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은 2030년 5,5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5,536명을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2022~2030년까지 연간 목표가 5,500명으로 매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2030년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도시텃밭 조성면적(ha)은 2030년 260ha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 실적은 222ha로서 목표 수준인 232ha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고, '23년 목표 달성률은 95.7%로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2.5% 포인트 감소하였다. 따라서 기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요약하면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의 성과지표와 장기 성과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1.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 목표치	23년 실적치/ 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8	산모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67/ 60	67/ 65	달성 (111.5)	달성 (103.7)	70% ↘
9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67/ 60	67/ 65	달성 (111.5)	달성 (103.7)	70% ↘
10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관리와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회)	14/ 14	14/ 운영	달성 (100)	달성	운영 -
11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단계 자살예방 추진	자살률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명)	21.4/ 20.5	통계치 미발표/ 20.3	일부달성 (95.6)	-	19명 -
12	마약, 알코올, 흡연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건)	4,985/ 4,500	5,976/ 4,550	달성 (110.8)	달성 (131.3)	5,000건 ↗
13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교통사고사망자 획기적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명)	221/ ↘	177/ ↘	달성 (100)	달성 (100)	감소 (↘) -
14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기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명)	97,609/ 97,609	102,493/ 100,000	달성 (100)	달성 (102.5)	103,000명 ↗
15	서울형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제고한다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서울시 보건지소 수 (개소 수)	37/ 44	41/ 운영	일부달성 (84.1)	달성	운영 -
16	유해물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대책을 강화한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중독질환 예방교육(교구배포 포함) 지원 건수	11,918/ 500	14,098/ 13,500	달성 (2,383.6)	달성 (104.4)	운영 ↘

○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의 이행을 위해서 9가지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9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의 2개 지표는 상향 추세이고,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서울시 보건지소 수의 3개 지표는 유지,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중독질환 예방교육 지원 건수 2개 지표가 하향 추세를 보인다. 2022년과 2023년 실적치를 비

교하여 보면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서울시 보건지소 수, 중독질환 예방교육 지원 건수의 4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목표치 하향지표로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의 2개 지표는 전년 대비 동일한 실적치를 나타내고 있다.

- 9가지 성과지표 중에서 2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지표는 총 3건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 중독질환 예방교육 지원 건수이다. 반면, 자살률과 서울시 보건지소 수는 2022년에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서울시 보건지소 수의 3개 지표는 유지 지표 또는 하향 지표로서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은 2030년 7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67%로서 목표 수준인 65%를 상회하였지만 ‘23년 목표 달성률은 103.7%로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7.8% 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이행과제 9번(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의 성과지표를 「5세 미만 사망률(하향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행과제의 세부 목표로 설정한 ‘1,000명당 2.5명 이하의 비율’을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성과지표이기 때문이다.
-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성과지표로서 2022년과 2023년 연도별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다만 2023년 이후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이라는 단순한 훈련 운영 이외에 성과목표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폐지 등 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살률(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은 2023년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아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25.2명에 이른다. 반면,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1.6명으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약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신건강 관리와 자살 예방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중앙 및 지방의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는 2030년 5,000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5,976건을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 마약, 알코올 등 중독자의 일탈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2030년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사망자 수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제로 2022년 221명에서 2023년 177명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이행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중상자 수를 추가하여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외에도 중상을 입은 사람의 수를 측정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폭넓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는 2030년 103,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 이미 근접한 102,493명을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2030년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증가율로 지표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보건지소 수는 보건지소 수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실제로 2022년 37곳에서 2023년 41곳으로 설치된 보건지소 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22년까지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2023년 이후 단순한 운영 이외에 성과목표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보건지소 만족도(또는 공공보건 의료 만족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중독질환 예방교육 지원 건수는 성과목표 달성률이 2022년 2,383.6%, 2023년 104.4%로서 1년 사이 약 20여 배의 실적 차이가 나서 지표로서 안정적이지 않아 지속 관리할 성과지표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2030년 성과목표치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폐지 등 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은 17대 역점과제이지만 성과지표가 너무 많아 축소할 필요가 있다.

2.1.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 목표치	23년 실적치/ 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17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9.0/ 50.0	51.5/ 51.0	일부달성 (98)	달성 (101)	60% ↗
18	모든 서울시민이 적절한 비용 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시민대학 운영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수 (명)	33,842/ 33,600	37,998/ 34,608	달성 (100.7)	달성 (109.8)	42,560 명 ↗
19	서울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취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율 (%)	90.6/ 89.4	92.2/ 89.6	달성 (101.3)	달성 (102.9)	90% ↗
20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 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市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명)	24,991/ 35,000	29,635/ 40,000	일부달성 (71.4)	일부달성 (74.1)	50,000 명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개소)	135/ 132	137/ 134	달성 (102.3)	달성 (102.2)	150 개소 ↘
21	어떠한 서울시민도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본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명)	22,777/ 19,000	27,246/ 19,500	달성 (119.9)	달성 (139.7)	21,000 명 ↗
22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한다.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교육 이수자수 (명)	4,637/ 1,200	1,252/ 1,300	달성 (386.4)	일부달성 (96.3)	2,000 명 ↘

-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의 이행을 위해
서 6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7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기술교육원
교육 수료율,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의 5개
지표는 상향 추세이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 교육 이수자 수의 2개 지
표가 하향 추세를 보인다. 2022년과 2023년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기술교육원 교육 수료율,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
훈련교육 참여자 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의 6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에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교육 이수
자 수는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 7가지 성과지표가 대부분 2023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

- 훈련교육 참여자 수(달성률 74.1%), 교육 이수자 수(달성률 96.3%) 등 2개의 지표가 2023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는 2020년 34,000명, 2021년 32,640명, 2022년 24,991명, 2023년 29,635명으로서 2020~2021년에 비해서 실적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실적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30년 6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51.5%로서 목표 수준(51%)을 상회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3.8%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는 2030년 42,5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37,998명으로서 목표 수준(34,608)을 상회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단순히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로 지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서울시 인구 대비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술교육원 교육 수수료율은 2030년 9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92.2%로서 목표 수준(89.6%)을 상회하였다. 다만 기술교육원 교육 수수료율은 2030년까지 성과지표로서 관리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에 서울시 인구 대비 기술교육원 교육수수료인원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등 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는 2030년 5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29,635명으로서 목표 수준(40,000명)을 대폭 하회하였다. 특히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는 2020년 34,000명, 2021년 32,640명, 2022년 24,991명, 2023년 29,635명으로서 2020~2021년에 비해서 실적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실적치가 지속 감소한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로 지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서울시 인구 대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는 2030년 1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137개소로서 목표 수준(134개소)을 상회하였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는 2020년 131개소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정보화 교육 이수자 수는 2030년 2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27,246명으로서 목표 수준(19,500)을 상회하였다. 반면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교육 이수자 수는 2030년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1,252명으로서 목표 수준(1,30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교육 이수자 수도 전년 대비 급격하게 감

소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교육 이수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 및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특성상 절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서울시민이 기본적인·보편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 참여 인원이나 수료율 보다는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교육 참여자 수 증가율로 모든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점에 따라 증가율의 경우 모든 지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교육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사회 부문 교육 부문에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2.1.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2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 추진건수	265/ 250	270/ 250	달성 (106)	달성 (108)	350 건 ↗
24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안심이 앱 다운로드(건수)	205,902/ 250,000	278,696/ 260,000	일부달성 (82.4)	달성 (107.2)	300,000 건 ↗
25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개소)	262/ 282	274/ 320	일부달성 (92.9)	일부달성 (85.6)	380 개소 ↘
26	여성이 남성과 공평하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여성관리자 양성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32.8/ 28.5	36.3/ 33.1	달성 (115.1)	달성 (109.7)	33.5% ↗

-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의 이행을 위해서는 4가지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4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 안심이 앱 다운로드, 여성관리자 양성비율의 3개 지표는 상향 추세이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 지표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 2022년과 2023년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4개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 대부분 성과지표가 2023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달성률 85.6%)만 2023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 성별영향평가 추진건수는 2030년 3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270건으로서 목표 수준(250건)을 상회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도로 성과지표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정책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 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30년 300,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278,696건으로서 목표 수준(260,000건)을 상회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는 이행과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인 대안 지표개발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 수 감소율’은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의 연간 발생률(또는 여성 1인가구 폭력 사건 수 감소율 등)을 측정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사건의 감소추세를 평가할 수 있다.
-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는 2030년 38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274개소로서 목표 수준(320개소)에 미치지 못하였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의 경우 교육부의 학교돌봄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여성관리자 양성비율은 2030년 33.5%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실적은 36.3%로서 목표 수준(33.1%)을 상회하였다.

2.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

2.2.1.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제고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99.7/97.5	99.0/98.0	달성 (102.3)	달성 (101)	98.8% ↘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계)(MW)	932/964	1,038/1,139	일부달성 (96.7)	일부달성 (91.1)	2,405 MW ↘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정비/전략 계획 수립/통합시스템 구축	대사민용 누리집 통합/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달성	달성	계속 추진 -
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그린 리모델링 (노후 공공건물) (개소)	137/117	312/84	달성 (117.1)	달성 (371.4)	1,079 개소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차 보급 대수(누계) (대)	75,708/65,044	90,347/96,044	달성 (116.4)	일부달성 (94.1)	신차 등록 대비 전기·수소차 비율 50% ↘
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 ₂)	47,055/전년 대비 감소	46,501/전년대비 감축	일부달성	달성	29,600 천톤CO ₂ ↗
		녹색 중소기업 지원	지원 수혜 녹색 중소기업 지원 수	247/150	277/187	달성 (164.7)	달성 (148.1)	200 개사 ↘

-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제고>의 이행을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7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3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5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과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사업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그린 리모델링과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는 상향, 에너지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은 유지,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전기차 보급대 수와 녹색 중소기업 지원 수는 하향 추세를 보였다.

- 2022년과 2023년도 실적치 추세는 달성률 포함인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지표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그린 리모델링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적은 달성률 추세와 동일하며, 나머지 지표들은 달성률은 하향 추세이나 실적치 자체는 증가하였다.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후 적응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기업이나 협동조합과의 협업⁴⁾도 고려할 수 있다. 2020~2021년 기간에는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으나 2022~2023년 기간에는 목표치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영역에서 2022~2023년 기간 이행과제 목표와 실적치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달성률은 감소하였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전력 이용률 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어진 평가지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용량 누계이다. 따라서 해당 지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그 자체가 아니라 총전력이용 대비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량이 적절할 것이다.
 -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타입마다 상황이 다양한데,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시 정책에 있어서 정부 방침과 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2021년 서울의 에너지 정보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서울시의 주요 사업이다.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진행단계에 맞추어 적절하게 성과지표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021년에는 에너지 정보 시스템의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2022년에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3년에는 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향후에는 시민들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0년 이상 노후건물은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며, 이 건물들이 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서울시 내 30년 이상 노후건물 비율은 44%(19년 건물 동수 기준)이며⁵⁾,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있는데, 2022~2023년 기간 리모델링이 된 건물 수는 두 배 넘게 증가하였다.
 - 서울시는 공공부문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79개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600개소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
- 2020~2021년 지속발전보고서에서는 전기차 보급과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 대수는 서울

4) 고지서 김면과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행하게 되는데, 쓰지 못하고 남은 에너지바우처를 소멸시키지 않고 혜택대상자에게 돌려주거자는 의견이 있다. 또 에너지바우처는 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협동조합으로 가맹점을 확장하여 에너지바우처를 가장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1인가구에서 바우처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 유정민 외 (2023)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 추진전략과 과제. 서울연구원 pp.67, <https://www.si.re.kr/node/67931>

시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직접 결과로 보기 어려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관련 내용을 지표로 삼으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전기차 보급 대수로 에너지효율을 평가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은 서울시의 정책 성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 개소’를 비롯하여, 서울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로 지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

- 서울시의 그린뉴딜 추진 사업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부 계획으로 녹색기술 R&D 지원을 비롯하여 신재생 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 IT, 도시자원순환 등 7대 사업 분야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동시에 관련 일자리를 마련하고 늘릴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원 수혜 녹색 중소기업 수로 성과를 측정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환경제 활동 중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생활과 사업장폐기물의 소각과 매립 처리, 그리고 하수처리 활동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다루는데, 이렇게 측정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가장 최소한의 성적표이다.⁶⁾ 서울시는 공공부문 건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79개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600개소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완성하였다.
 -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과정의 복잡하고 활동데이터와 산정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지만 산정방식상의 문제로 매립량이 줄어드는 데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과대 반영되었다는 지적이 있다.⁷⁾
- 녹색기술 R&D 지원은 현재 지원받은 녹색중소기업 수로 측정되고 있는데, 평가지표가 같은 개념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은 스타트업이나 대학 등 교육기관 혹은 대기업도 가능하다. 녹색중소기업 지원이 연구개발에 쓰인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다. 7대 녹색산업의 증진을 평가하는 성과지표 외에 녹색기술 R&D 지원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6) 김고운 외 (2023) 순환경제-탄소중립 연계 위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 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node/67484>

7) 김고운 외 (2023) 순환경제-탄소중립 연계 위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 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node/67484>

2.2.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31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의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자원 교류의 거점 공간 「상생상회」 조성·운영	상생상회 상설매장 월 방문객 수(명)	12,916/12,000	16,670/14,000	달성 (107.6)	달성 (119.1)	20,000명 ↗
32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창의·혁신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개)	1,369/1,127	1,220/1,200	달성 (121.5)	달성 (101.7)	1,800개 ↘
33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개)	6,121/6,000	6,264/6,100	달성 (102)	달성 (102.7)	6,500개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개)	51/50	55/50	달성 (102)	달성 (110)	50개 ↗
34	성평등금지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성평등임금 컨설팅 기관 수(개)	6/40	26/50	미달성 (15)	일부달성 (52)	50개 ↗
35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명)	3,991/4,200	3,981/4,200	일부달성 (95)	일부달성 (94.8)	4,200명 ↘
3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자권리 구제건수 (건) (서울노동권익센터)	210/200	84/220	달성 (105)	미달성 (38.2)	300건 ↘
37	서울시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품격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입안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서울 관광 중기발전계획 추진	관광기업 지원 수(개)	1,164/1,000	1,321/1,100	달성 (116.4)	달성 (120.1)	3,000개 ↗
		관광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여부	미검토/관광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	미검토/관광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	미달성	미달성	검토 시행 -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의 이행을 위해 9개의 세부 이행목표가 설정되었고, 모두 8개의 세부 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3년도 목표달성률을 보면, 8개 지표 중 상생상회 월 방문객 수,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 관광기업 지원 수 등 5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성평등임금 컨설팅 기관 수는 52%,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는 94.8%의 달성률을 보였다. 노동자권리 구제 건수는 38.2%만

달성되었다. 관광분야·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사업은 관련 계획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 2022~2023년 기간 달성률 추세를 보면, 상생상회의 조성 및 운영, 사회경제적 기업 육성,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서울 관광 중기 발전계획 추진사업의 측정 지표가 상향 추세이고,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의 지표들은 하향 추세이다.
- 상생상회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현재는 월 방문객 수로 측정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지표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요 관점에서는 이용자당 소비액 혹은 업체당 판매액이며 공급 관점에서는 업체당 참여 농업종사자나 지역상인 수가 “교류”, “조성”, “운영”을 측정하는 정확한 지표가 될 것이다.
-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는 하향 추세이나 실제로는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되었다. 또 2020~2021년 기간 대비 실적이 증가하였으므로 하향 추세가 크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측정되는 이행과제 33번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따라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된 기업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향하므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지표가 된다.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성과를 비롯한 보다 직접적인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는 이행과제 34번은 2022년 미달성했다. 그 사유로는 성평등임금 컨설팅은 성평등 임금공시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에는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이 6개로 집계되었다. 소관부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서울형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제도를 확장하여, 폭넓은 방법으로 출산, 육아를 장려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하니 성평등 노동환경을 보다 긍정적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임금 컨설팅 기관 수로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나, 컨설팅 기관 수 그 자체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며, 컨설팅의 결과 실제로 성별임금격차가 개선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 정확한 지표가 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이행하는지, 혹은 서울시 내 산업별 바스켓⁸⁾을 만들어 실제로 성별임금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하는게 이행과제에 맞는 측정지표라고 생각된다.

8) 임의적으로 지역, 직종, 나이, 교육수준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를 표본추출하여 바스켓을 만들고 성별임금격차의 변화를 보는 것을 제안한다.

- 노동자 권리 구제 건수도 2023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2023년도 민간위탁금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소관부서에 따르면 향후 운영방식 및 내용 등이 개편 검토인 관계로, 성과지표 삭제 및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 청년뉴딜일자리는 실적이 2020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지표는 실업상태 청년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이므로 홍보를 포함,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행과제 37번 중 관광 분야 중장기행정계획 검토는 현재 미검토상태이나, 코로나19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관광업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관광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2.3.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38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63.6/66.3	통계치 미발표/66.6	일부달성 (95.9%)	통계미집계	67.3%
39	미래 기술 기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개)	1,369/1,127	1,220/1,200	달성 (121.5)	달성 (101.7)	1,800 개 ↘
40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서울형 R&D」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백만원)	38,233/38,233	40,102/38,233	달성 (100)	달성 (104.9)	38,233 백만원 ↗
		AI 인재양성	AI 분야 인재 양성 수(명)	732/400	987/450	달성 (183)	달성 (219.3)	750 명 ↗

-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의 이행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모두 4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2년과 2023년,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AI분야 인재양성 수가 각각 성과지표상의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2022년 실적치만 집계가 되었고, 2023년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는 하향 추세이나 2020~2021년과 실적치(1,246/1,110개)로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서울형 R&D 지원금액은 상향 추세이며 AI 분야의 인재양성은 상향세일 뿐만 아니라 2020~2021년 (450/700명)과 비교해서도 대폭 늘어났다.

-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2021년 보고서에도 실적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2023년에도 통계치가 미발표 상황인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서울형 신성장 기업 육성은 육성기업 수 외에도 실제로 이들 기업이 만들어내는 고용이나 부가가치가 더 의미있는 성과지표일 것이다.
-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목표치를 상회하여 지원한 것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시책으로 판단된다.
- AI 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목표치도 계속 적극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목표치를 많이 초과하여 실적을 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2.4.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4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중위소득 하위 43%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 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명)	418,579/ 373,726	419,088/ 392,412	달성 (112)	달성 (106.8)	552,164 명 ↘
42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 (누적) (개)	98/ 80	98/ 90	달성 (122.5)	달성 (108.9)	135 개 ↘
4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인권영향평가제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건)	2/ 3	3/ 3	일부달성 (66.7)	달성 (100)	3건 ↗
4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 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생활임금 지급률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 (%)	100/ 100	100/ 100	달성 (100)	달성 (100)	100% -

-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이행을 위하여 4개의 세부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4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각각 설정되었다.
- 2023년도 목표 달성률에 근거하여 4개 지표를 검토하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생활임금 지급률 등 4개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 2022년도와 2023년도의 달성률 추세를 보면,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는 상향 추세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는 하향 추세이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은 실적이 증가함에도 목표치 역시 증가하여 하향세가 되었으며 2030 목표 달성 기준에는 더욱 근접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인데, 이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지표이다. 그런데 이행과제의 주체는 서울시민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20~2021년 평가 보고서 역시 동일한 내용을 지적한 바,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혜자 수'를 대체적 지표로 제안하였다.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성과지표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인데 '지원'이 사업이므로 단체 수보다는 '총 지원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성과측정 지표로 보인다. 이 부분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로 그 성과를 측정하는데, 이 성과지표는 일단 건수 자체가 매우 적어서 달성(3/3)과 일부 달성(2/3) 간의 차이가 의미가 크지 않다. 이 사업도 공급자 중심이므로 수요자 중심의 지표(예: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란에 시민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조치 건수)가 인권영향평가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는 생활임금 지급률인데, 신청자 대비 지급률인지 해당 소득계층 시민 중 지급률인지 의미가 불분명한 것 같다. 이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생활임금 수혜자 수 등의 지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2.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45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강화한다.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	노후상수관 정비율(%)	99.7/99.0	99.8/유지	달성 (100)	달성	유지 -
46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 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CSOs 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	CSOs 저류조 설치 (m ³)	5.8만/5.8만	5.8만/5.8만	달성 (100)	달성 (100)	21.4만 m ³ -
47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빗물관리(이용)시설 확충 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 (개소)	246/200	79/75	달성 (123)	달성 (105.3)	75 개소 ↘
48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활동	이행/이행	이행/이행	달성	달성	이행 -
49	한강 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 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	한강숲 조성(주)	99,066/100,000	82,589/70,000	일부달성 (99.1)	달성 (118)	7만주 식재 ↗
			자연형 호안 복원 (km) ⁹⁾	'22(실적): 2.8km '23(실적): 2.6km ¹⁰⁾		일부달성	일부달성	- -
50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민간단체 지원 수 (개)	12/12	12/12	달성 (100)	달성 (100)	12개 -

-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의 이행을 위해 6개 이행과제와 6개 이행사업, 7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타 지표와 달리 한강수계의 자연성 회복 이행과제의 경우 성과지표가 2개가 설정되었다.
- 2023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자연형 호안 복원 성과지표가 일부달성으로,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특히,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는 105.3%, 한강숲 조성은 118% 달성하여 높은 달성률을 보인다.
- 2022년과 2023년의 달성률 추세를 보면 한강숲 조성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빗물

9) 해당 사업은 2~3년에 걸친 중장기 계획이며, 6~9월에는 한강 침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차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여 단년도의 목표 및 실적치 도출이 어려우므로, 실적치만 제시한다. 향후 지표 변경 및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22년: 잠실 공사(0.8km), 망원 설계(2km)

'23년: 망원 공사(0.6km), 강서 설계(2km)

- 관리시설확충 개소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상수관 정비율, CSOs저류조 설치,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활동 및 민간단체 지원 수 등은 유지를 보인다. 특이할 사항은 빗물 관리시설확충 개소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개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 노후상수관정비율(%)은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치 대비 실적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높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임에 따라, 2030년 목표기준도 무리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지표는 서울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식수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표이다. 다만, 노후상수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전체 상수관 대비 노후상수관 비율을 지표로 가져가 하향 지표 성격을 갖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CSOs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CSOs 저류조 설치 성과지표의 경우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 달성하였다. 다만, 해당지표의 경우 신규로 CSOs 저류조가 설치될 때까지 어떠한 노력 없이도 매년 달성이 가능하므로 지표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표이다. 따라서,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성 보고서(22.6.)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CSOs 관리라는 세부사업 대신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검토하고 성과지표로는 하수관로 정비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 지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목표를 달성하여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목표가 200개소에서 2023년 목표가 75개소로 대폭 감소 되었는데 이는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지표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등에 반영하여 의무화함으로써 해당지표를 폐지하거나, 물 재이용률(%)과 같은 성과지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활동은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생태계를 통합관리하는 지표로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목표가 '이행'으로 이행에 따른 노력도, 합리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시민의 만족도 조사 점수 또는 관련 위원회의 평가 점수 등 계량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한강숲 조성(주) 지표는 2022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23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가 2022년 10만 주, 2023년 7만 주로 목표가 대폭 축소되었다. 반면, 자연형 호안 복원 지표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목표를 일부달성 하였으나 사업 특성상 단년도에 걸쳐 실적치를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지표의 삭제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물관리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지원 수' 성과지표는 2022년, 2023년 모두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2024년 예산이 모두 삭감되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지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51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대 목표 추진	서울 SDGs 체계 이행	성과보고서 작성/성과점검	지표점검 완료/지표관리	달성	달성	성과점검 및 미래 사업발굴 -
52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추진	(자원)순환이용률 (%)	71.5/67%	통계치 미발표/68%	달성 (106.7)	통계치 미발표	70%
53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 ('14년 대비)	22.0/12.4	23.8/12.9	달성 (177.4)	달성 (184.5)	15.9% ↗
54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 권리 강화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8/5	3/5	달성 (160)	일부달성 (60)	5회 ↘
5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생활폐기물 직매입 제로화로 자원순환도시 구축	생활폐기물 감축률 (%)	6/6	9.7/7	달성 (101.3)	달성 (138.6)	10% ↗
56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지원한다.	서울 SDGs 2030의 민간실천 촉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	318/75	315/80	달성 (424)	달성 (393.8)	100건 ↘
57	시민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 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녹색제품 구매율 (%)	48.7/58.0	48.4/59.0	일부달성 (84)	일부달성 (82)	63% ↘
58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교육 이수자 수 (명)	4,637/1,200	1,252/1,300	달성 (386.4)	일부달성 (96.3)	2,000명 ↘
5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친환경금고기준	친환경금고지정 기준	검토 및 자문회의(2회) 실시/검토필요	지표관리/지표관리	달성	달성	지표관리 -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의 이행을 위해 9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9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3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서울 SDGs 체계 이행,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생활폐기물 감축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 친환경금고 지정기준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녹색제품 구매율,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

시 서울' 교육 이수자 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자원순환이용률은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아 목표 달성률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감축률은 138.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184.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는 393.8%로 목표 달성률이 높아 매우 고무적이다.

-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1개 지표를 제외하고 2022년과 2023년의 실적치를 비교하여 추세를 보면 생활폐기물 감축률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 녹색제품 구매율,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이수자 수 등 4개 지표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 또한, 서울 SDGs 체계 이행, 친환경금고지정기준은 유지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과제는 2022년 대비 2023년의 실적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 서울시 SDGs 체계이행 지표는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17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지표로 그 지표 자체로는 매우 중요하며 2022년과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성과를 점검하고 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심판의 역할로 심판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성과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자원순환이용률은 최종 통계가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2023년도 평가에는 포함되지 못하나, COVID-19로 실적 악화가 예상되었던 2022년도에 106.7%의 달성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2023년도에도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다만, 서울시의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향후 목표는 새로운 자원순환시행계획의 목표에 근거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은 2년 연속 달성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 목표를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모두 실적을 달성하여 2023년 이후에도 큰 무리가 없는 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성과지표의 경우 2022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2023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목표의 달성여부와 별개로 환경보건위원회 운영이 해당 성과지표로서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량 등의 명확한 목표 지향적 계량지표를 사용하거나, 특별한 성과지표를 발굴하지 못한다면 성과지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울시가 자원순환 도시로의 진입에 큰 도움을 주는 생활폐기물 감축률 지표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목표를 17%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36.8%로 크게 증가해 서울시가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는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2022년 424%, 2023년 394% 모두 목표를 크게 달성하였다. 다만, 2개년 모두 목표와 실적의 차이가 너무 커서 목표가 타당하게 공격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2024년도부터는 추세 분석 또는 3개년 평균의 110~120% 등 목표설정 방법론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ESG 보고서 또한 활성화되고 있어 2개의 성과지표로 운영하거나 2개의 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보인다.
- 녹색제품 구매율(%)은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성과지표로 녹색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다만, 아쉽게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표를 점진적으로 상향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왜 계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한 부서와 달성하지 못한 부서 간에 인센티브, 패널티 등 환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이수자 수 성과지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목표를 지속 달성해오다가 2023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 사유는 2023년부터 신입 교육에 지속가능발전 교과목이 폐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래 시정을 책임질 신입 공무원들에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라도 필수 교육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
- 친환경금고지정기준 성과지표의 경우, 2022년도와 2023년도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성과지표의 경우 이미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시금고를 지정,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성과지표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연 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 목표치	23년 실적치/ 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60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충충한 수해안전망 구축으로 인명피해 방지 및 재산피해 시민불편 최소화	홍수해 인명피해(명)	0/ 1.8	0/ 2	달성	달성	유지
				-				
61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 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기후환경 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	100/ 19	100/ 21	달성 (526.3)	달성 (476.2)	30% ↘
62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 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에너지 자립마을 2.0	에너지 자립마을 수 (개)	263/ 300	263/ 370	일부달성 (87.7)	일부달성 (71.1)	600 개 ↘
		기후변화 교육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센터 방문객 수 (명)	38,309/ 50,000	41,968/ 50,000	일부달성 (76.6)	일부달성 (83.9)	100,000 명 ↗
63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 ₂)	47,055/ 전년 대비 감소	46,501/ 전년대비 감축	일부달성	달성	29,600 천톤CO ₂ ↗
64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서울시 기후변화 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기후대응기금 확대 및 운용 개선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편성규모 (백만원)	28,606/ 10,000	38,307/ 10,000	달성 (286.1)	달성 (383.1)	10,000 백만원 ↗
65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국제협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 (회)	1/ 1	1/ 2	달성 (100)	일부달성 (50)	2회 ↘
				-				

-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의 이행을 위해 6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7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3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홍수해 인명피해,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편성 규모 등 4개 성과지표가 달성하였고, 에너지 자립마을 수, 센터 방문객 수,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 등 3개 성과지표가 일부 달성을 하였다.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한 성과지표 수는 각각 4개이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비율이나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이행률을 지표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2022년과 2023년의 실적치를 비교하여 추세를 보면 센터 방문객 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편성 규모 등 3개 지표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반영률, 에너지 자립마을 수,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 등 3개 지표가 하향 추세를 보인다. 기후변화 적응 지표인 홍수해 인명피해의 경우 유지를 보인다.

- ‘홍수해 인명피해’는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보인다. 이 지표의 경우 시간당 100mm 이하 시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로 제한되어 있어 2022년과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 강남역 일대 침수 사건을 기억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역 일대의 경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5번이 침수되었다. 따라서, 시간당 강우량과 상관없이 모든 홍수해에 대한 인명피해 수로 세부 성과지표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홍수해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반영률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다만, 성과지표가 모호하여 성과지표에서 정의하는 법정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정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성과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에너지자립마을 수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달성률 34%), 2021년(달성률 11.5%) 대비 2022년과 2023년은 달성률이 각각 87.7%, 71.1%로 대폭 증가하였다. 4개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점진적으로 달성도가 양호해지는 것은 서울시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광역환경교육센터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성인뿐 아니라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센터 방문객 수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다만,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성과지표의 문제이기보다는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된다. 두 센터의 규모를 참고했을 때 연간 방문객 수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배출량 성과지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2022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23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2023년의 경우, 포스트-코로나 시기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간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 종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2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변화기금 지출사업 편성 규모 성과지표의 경우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특히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했지만, 목표가 100억 원으로 너무 낮게 설정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한 도시임을 감안할 때 그 위상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와 같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게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상징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글로벌 도시가 후발개발도상국의 도시에 도움을 주는 사업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2.3.4.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66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수질검사 항목 수 (개)	341/341	346/341	달성 (100)	달성 (101.5)	341개 ↗
67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물재생센터 방류수질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물재생센터 방류 수질관리) (mg/ℓ)	0.23/0.46	0.25/0.44	달성 (150)	달성 (143)	0.40~0.35 mg/ℓ ↘
68	한강이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한다.	통합물관리 연구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횟수 (회)	10/1	6/1	달성 (1000)	달성 (600)	1회 ↘

-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의 이행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3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3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3개 지표가 모두 성공리에 달성하였다. 2022년과 2023년의 실적치를 비교하여 추세를 보면 수질검사 항목 수는 상향 추세이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횟수는 하향 추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현황으로 보인다.
-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수질검사 항목 수’는 한강을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2022년 및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22년 이후 목표가 341개가 유지되고 있어 목표설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수질검사 항목 수보다 향후에는 주요 수질검사 항목별 오염도 저감률을 성과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표의 경우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해양생태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지표이다. 2022년, 2023년 목표 대비 실적이 각각 150%, 143%로써 서울시가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목표와 실적이 유사하여 유지 수준 목표로 별도의 모

니터링이 필요한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 지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연구기관의 교류 협력 횟수 지표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고 달성률이 각각 1,000%, 600%에 달한다. 다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목표가 모두 1건으로 이 지표의 목표가 타당한지 큰 의문이 생긴다. 또한, 연구기관 교류 협력 횟수 지표가 통합물관리 연구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해당 지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3.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69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나무 식재량 (주)	유지관리/유지관리	유지관리/유지관리	달성	달성	유지 관리 -
70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안전한 도시 숲 관리	산불 피해면적 (㎡)	2.7만/1.05만	6.04만/1.00만	일부달성 (57.1)	미달성 (-404)	0.80만 ㎡ ↘
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등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자연생태보호지역 증가면적 (㎡) ('14년 대비)	190,041/56,400	190,041/62,700	달성 (337)	달성 (303.1)	106,600 ㎡ ↘
72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야생생물 증식 수 (마리)	5,080/18,000	7,000/19,000	미달성 (28.2)	미달성 (36.8)	22,000 마리 ↗
73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면적 (천㎡)	1,268천/1,000천	2,524천/1,000천	달성 (123.8)	달성 (252.4)	1,000 천㎡ ↗
74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 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지속가능성 검토를 통한 법정계획의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포함 완료/평가준에 포함	포함 완료/평가준에 포함	달성	달성	기준에 생물다양성 포함 -

-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의 이행을 위하여 6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6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3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나무 식재량, 자연생태보호지역 증가면적,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면적,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등 4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산불 피해면적, 야생생물 증식 수 등 2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2022년과 2023년의 실적치를 비교하여 추세를 보면 야생생물 증식 수,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면적 등 2개 지표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산불피해면적, 자연생태보호

- 지역 증가면적 2개 지표가 하향 추세를 보인다. 한편, 나무식재량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지표의 경우 유지를 보인다.
- 서울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위해서 ‘나무 식재량’ 지표는 생물들의 터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보인다.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다만, 지표의 단위가 만 그루로 설정된 것에 비해 최근 2년간의 목표와 실적이 ‘유지관리’라는 점은 이 지표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목표를 과거와 같이 계량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지표를 폐지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산불피해면적 지표의 경우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2023년 4월 인왕산 산불로 인해 6ha의 피해면적이 발생하여, 약 -400%가량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따라서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동들이 필요해 보인다. 산불의 경우, 온실가스 흡수원이 부족해질 수 있고,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제일 중요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협조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자연생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인 자연생태 보호지역 증가면적의 경우에는 2022년, 2023년 목표를 각각 337%, 303% 크게 달성하였다. 다만,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300%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과연 목표설정이 합리적인가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 특성상 자연생태보호지역을 더 증가하기 어렵다면 지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수 지표의 경우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소관부서 확인 결과, 양서류 증식기 관인 서울대공원의 증식장 공사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지표는 현재 야생동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호종 식물들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면적 지표의 경우 2022년, 2023년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특히 2022년 123.8%에서 2023년 252.4%로 목표 달성률이 크게 증가하여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목표설정이 2020년 이후 1백 만 m^2 로 고정되어 있어, 보다 공격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지표의 경우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시 평가 기준에 생물다양성 증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목적을 조기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표는 성과를 이미 달성 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4. 함께 만드는 서울

2.4.1.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75	서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 부담 가능한 주택의 확충을 통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공공임대·공공 지원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비율 (%)	10.12/10.0	10.62/10.50	달성 (101.2)	달성 (101.1)	12% ↘
76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63.6/66.3	통계치 미발표/66.6	일부달성 (95.9%)	통계미집계	67.3%
77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	10/10	10/10	달성 (100)	달성 (100)	10% -
78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미래유산 선정 건수 (건)	4/10	2/10	미달성 (40)	미달성 (20)	10건 ↘
79	빈곤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재난 시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가구)	22,864/22,864	25,498/23,000	달성 (100)	달성 (110.9)	23,700 가구 ↗
80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µg/m³)	18/20	20/19	달성 (110)	일부달성 (94.7)	15 µg/m³ ↘
81	공원복지서비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복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 확대	생활정원 녹화면적 (km²)	1/1	1/1	달성 (100)	달성 (100)	6km² -
8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MOU 체결 건수(누계) (개)	79/82	86/86	일부달성 (96.3)	달성 (100)	114 개 ↗

○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의 이행을 위하여 8개의 이행사업이 설정되었고, 8개의 이행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2년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등 5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났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및 MOU 체결 건수 성과지표는 일부달성, 미래유산 선정 건수는 달성률 40%로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등 5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났고, 초미세먼지 농도 성과지표는 일부달성, 미래유산 선정 건 수는 달성률 20%로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 2022년과 2023년도 달성률 추세를 보면,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MOU 체결 건수(누계)는 상향 추세, 공공임대주택 비율, 미래유산 선정 건수, 초미세먼지 농도 성과지표는 하향 추세이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생활정원 녹화면적 성과지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동일한 달성률 100% 유지로 나타났다,
-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한 실적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MOU 체결 건수(누계) 등 3개 지표는 상승, 미래유산 선정 건수, 초미세먼지 농도 등 2개 지표는 하향,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생활정원 녹화면적 성과지표의 실적치는 같았다.
-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주택공급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도권 광역체제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는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인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2022년 실적치만 집계되었고, 2023년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된다. 시민참여형 미래 2040 서울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 지역주민, 자치구, 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비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래유산 선정 건수는 2022년과 2023년 각 달성률이 40%, 20%로 미달성하였다. 소관부서 확인 결과, 근래에는 매년 미래유산 선정 건수 자체를 늘리기 보다는(양적 관리), 기선정된 미래유산의 질적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 유산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스스로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계기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표치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안전 취약가구 및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시설 개선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재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과제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사업의 성과지표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3년 목표치를 $19\mu\text{g}/\text{m}^3$ 로 낮추었으나 실적치는 오히려 20으로 상승하여 2022년도에 비해 달성률이 낮아졌다.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국내 단일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 국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맑은 공기 네트워크 등의 다자간 협력 및 교류 사업도 성과를 내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동노력을 통한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시의 추진계획 중 특이한 것은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미세먼지 안심 구역에 대한 효과에 따라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통하여 공동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생활정원 녹화면적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 성과를 달성하였다. 주요 추진 방향은 골목길, 주택가 등 시민 생활 속의 정원녹화로 추진이 되었는데 2030년 6km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매년 녹화면적을 1km씩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이고 2022년, 2023년은 목표 달성하였다.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는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사업의 성과지표인 MOU 체결 건수는 2022년 일부달성 하였으나, 2023년 100% 성과를 달성하였다.
- 상생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 교류를 위한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비롯하여 지역 간의 교차 및 통합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연계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더욱 체감되는 상생공동체를 조성하는 노력이 서로 필요하다.

2.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83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개소)	3/3	4/4	달성 (100)	달성 (100)	4개소 -
84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	102/100	112/유지	달성 (102)	달성	유지 -
85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 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시정권고 이행률 (%)	89/72	91.8/75	달성 (124.2)	달성 (122.4)	유지 ↘
86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 체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체납징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	27.7/17.4	24.25/17.6	달성 (159.2)	달성 (137.8)	19.0% ↘
87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를 근절한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점)	8.21/7.92	7.82/7.99	달성 (103.7)	일부달성 (97.9)	8.5점 ↘
88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건)	15/22	19/24	일부달성 (68.2)	일부달성 (79.2)	30건 ↗
89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액 (백만원)	2,250/500,000	7,969/500,000	미달성 (4.5)	미달성 (15.9)	700,000 백만원 ↗
90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와이파이 소외없는 서울 조성	공공와이파이 공급	446/300	유지보수/운영	달성 (148.7)	달성	운영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명)	22,777/19,000	27,246/19,500	달성 (119.9)	달성 (139.7)	21,000 명 ↗
91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시행	컨설팅 자치구 수 (개)	12/14	12/16	일부달성 (85.7)	일부달성 (75.0)	25개 ↘

○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의 이행을 위하여 9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10개의 이행사업과 10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2022년에는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 등 7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났고,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등 2개 성과지표는 일부달성, 시민참여예산액은 달성률 4.5%로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시정권고 이행률 등 6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등 3개

성과지표는 일부달성, 시민참여예산액은 달성률 15.9%로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 2022년과 2023년도 달성률 추세를 보면,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시민참여예산액,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는 상향 추세,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 및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는 유지, 시정권고 이행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컨설팅 자치구 수는 하향 추세이다.
-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한 실적치는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 시정권고 이행률,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시민참여예산액,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등 6개 지표는 상승,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등 2개 지표는 하향, 컨설팅 자치구 수는 달성률은 소폭 하향이나 실적치는 동일하였다.
- 범죄예방인프라 구축사업 개소 수는 2022년, 2023년 모두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민이 강력범죄가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예방인프라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확보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다. 아동 대상 범죄 발생은 매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는 2022년은 103.7% 달성이었으나, 2023년은 97.9%로 일부 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도 대비 소폭 하향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는 달성률이 2022년 68.2%, 2023년 79.2%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주민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시민참여 예산액은 2022년은 4.5% 달성, 2023년은 15.9% 달성으로 현저하게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소관부서 확인 결과, 2022년부터 시민 참여와 관련한 지역단위 사업이 자치구 자율 운영으로 변경되어 예산 등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관부서와 논의하여 목표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자치구 수는 2022년은 85.7% 달성이었지만 2023년은 75%로 하향 추세 일부 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3년부터 소관부서의 지자체 교부금 삭감으로 컨설팅이 미시행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4.3.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

연번	이행과제(세부목표)	이행사업	성과지표	22년 실적치/목표치	23년 실적치/목표치	22년 달성 여부 (달성률)	23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추세)
92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를 강화한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우수정책 해외 도시 공유 건수 (건)	26/20	39/20	달성 (130)	달성 (195.0)	20건 ↗
93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SDGs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지원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 건)	136/136	141/141	달성 (100)	달성 (100)	176건 -
94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협력 사업 건수 (건)	34/32	37/33	달성 (106.3)	달성 (112.1)	34건 ↗
95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안건 수 (개)	21/24	22/26	일부달성 (87.5)	일부달성 (84.6)	40개 ↘
96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ODA를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사업 추진	해외사업 신규 수주 (건)	4/4	6/4	달성 (100)	달성 (150.0)	5건 ↗
97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 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서울-평양 생활협력 단계적 활성화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미시행/생활협력분야 지속확대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미시행/생활협력분야 지속확대	미달성	미달성	생활 협력 분야 지속 확대 -

-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의 이행을 위하여 6개 이행과제, 6개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를 각각 설정하였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등 4개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안건 수는 두 해 다 일부 달성에 그쳤으며,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건수는 2022년, 2023년 모두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미시행되어 미달성하였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협력 사업 건수, 해외사업 신규 수주 건수는 상향 추세,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는 전년보다 목표를 상향하였으나 100% 달성으로 유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안건 수는 소폭 하향 추세, 그리고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지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달성이었다.
- 2022년과 2023년도 실적치 추세를 보면, 우수정책 해외 도시 공유,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협력 사업 건수, 해외사업 신규 수주 건수는 상승하고,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는 달성률은 유지이나 실적치는 상승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안건 수는 달성률은 소폭 하향이나 실적치는 상승하였다.

- 우수정책 해외 도시 공유 건수는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이 65%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련 부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수정책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 건)는 2022년 100%, 2023년에도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전년도 미달성에 비해 상승한 실적으로서 글로벌 선진도시로서 서울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사업 전반을 충실하게 추진한 결과라 판단된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식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 협력 사업 건수는 2022년, 2023년 모두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와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위원회 회의 안건 수는 2022년은 97.5% 달성, 2023년은 84.6%를 달성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6개 이행과제 중 유일하게 목표치 달성률이 하향 추세이나, 그 하향률은 적은 편이다. 다만, 달성률을 100%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 목표치를 계속 상향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위원회 안건을 발굴하여 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해외사업 신규 수주는 2022년과 2023년의 실적치/목표치는 각각 4/4, 6/4로 100%와 15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선진도시 서울의 위상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실정에 맞는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도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은 직전 연도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22년, 2023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미시행되어 미달성하였다. 본 이행과제는 사실상 외교 및 정무적 차원의 환경 변화에 따라 성과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이행과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계속 현재의 이행과제를 지속할 경우,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 요약 및 향후과제

3.1. 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 요약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4개 분야,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목표(이행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108개의 목표 달성여부는 다음과 같다.
 - '22년 기준 달성 76개, 일부달성 26개, 미달성 6개, 통계치 미집계 0개
 - '23년 기준 달성 75개, 일부달성 22개, 미달성 7개, 통계치 미집계 4개
- 108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의 비중은 '22년에 70% (=76/108*100) 그리고 '23년에 69.5% (=75/108*100) 수준으로 이전 평가 기간이었던 '20년의 79%와 '21년의 6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달성도 종합결과〉

분야	평가년	성과 지표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통계치 미집계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사회 분야)	2022년	28개	19	9	0	0
	2023년		20	7	0	1
활력있는 경제정의 도시 (경제 분야)	2022년	24개	17	5	2	0
	2023년		17	4	2	1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환경 분야)	2022년	32개	24	7	1	0
	2023년		22	7	2	1
함께 만드는 도시 (협력(거버넌스) 분야)	2022년	24개	16	5	3	0
	2023년		15	5	3	1

- 분야별로 달성률을 살펴보면, 사회 분야의 경우 '22년 64%(=19/28*100)에서 '23년 71%(=20/28*100)로 증가하였으며, 경제 분야의 경우 '22년과 '23년 모두 71% (17/24*100)의 달성률을 유지하였고, 환경 분야는 '22년 75%(=24/32*100)의 달성률에서 '23년 69%(=22/32*100)로 9%p 하락하였고, 협력(거버넌스) 분야는 '22년 67%(=16/24*100)의 달성률에서 '23년 63%(=15/24*100)로 4%p의 하락을 보였다.

〈분야별 달성률 추세 종합결과〉

분야	성과지표	이행상황 달성률 추세 결과			
		증가	유지	감소	통계치 미집계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28개	13	4	10	1
활력있는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24개	10	3	10	1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32개	8	11	12	1
함께 만드는 도시(협력(거버넌스) 분야)	24개	8	7	8	1

- 달성률 추세를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률이 증가한 성과지표는 39개(36%), 유지는 25개(23%), 감소는 40개(37%)로 성과가 하락한 지표가 상승한 지표보다 많았다.
- 분야별로는 사회 분야만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13개)가 감소한 지표(10개)보다 많았으며, 경제와 협력(거버넌스) 분야는 증가와 감소가 같았(10/8개)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감소한 지표(12개)가 증가한 지표(8개)보다 많았다.

3.1.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 사회 분야: 5대 과제, 27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8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2년) 총 28개 성과지표 중 달성 19개, 일부달성 9개, 미달성 0개, 통계치 미집계 0개 ('23년) 총 28개 성과지표 중 달성 20개, 일부달성 7개, 미달성 0개, 통계치 미집계 1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사회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2년			'23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19	9	0	20	7	0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	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			○		
	2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다.	○				○	
	3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			○		
	4 서울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나간다.		○			○	
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5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	○			○		
		○				○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유동 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6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		
	7	지방 농수산물 생산자와의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소규모 식량 생산은 물론 빈곤 및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지원한다.		○			○	
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8	산모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한다.	○			○		
	9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			○		
	10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관리와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			○		
	11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		통계치 미발표	통계치 미발표	통계치 미발표
	12	마약, 알코올, 흡연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			○		
	13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			○		
	14	건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		
	15	서울형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제고한다		○		○		
16	유해물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대책을 강화한다.	○			○			
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17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18	모든 서울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			○		
	19	서울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취업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			○		
	20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	○		○		
	21	어떠한 서울시민도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		
	22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한다.	○				○	
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역량강화	2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			○		
	24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		○		
	25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26	여성이 남성과 공평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			○		

- 사회 분야는 5대 과제, 27개 이행과제와 28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8개 성과지표 중 2022년은 달성 19개, 일부달성 9개로 67.9%의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 2023년은 달성 20개, 일부달성 7개, 통계치 미집계 1개로 71.4%의 달성률을 보이며 달성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 2022년 달성에서 2023년 일부달성으로 달성도가 하락한 이행과제 및 세부사업은 총 3개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전하고 영향을 갖춘 먹거리 보장과 관련된 서울 먹거리 정책,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살예방 추진 사업은 2023년 통계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치를 미달성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22년 일부달성에서 2023년 달성으로 개선된 이행과제 및 세부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여성안심특별시서울 등 4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안심특별시서울 사업이 2023년에는 목표치를 107.2% 충족하였다.
- 달성률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3개 성과지표는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률이 증가하였고, 5개 지표는 유지, 10개 지표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2022년, 2023년 감소추세를 보인 10개 지표는 모두가 달성률 추세가 하락하였다. 이 사업들의 경우 달성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2030 중장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달성률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과제별로 살펴보면,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 과제는 총 4개 이행과제 중에 2개 이행과제만 목표치를 달성하여 50%의 달성률을 보이며, 「2. 먹거리 안전과 도농 유통 구조개선 및 도시농업지원」과제는 총 4개 이행과제 중에 1개 이행과제만이 2022년, 2023년 목표치를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3.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과제는 총 9개 이행과제 중에 총 7개 이행과제가 2022년, 2023년 목표치를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4.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제는 총 7개 이행과제 중에 총 4개 이행과제가 2022년, 2023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특히 시 여성능력개발원 사업은 2022년, 2023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과제는 총 4개 이행과제 중에 2개 이행과제가 2022년, 2023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3.1.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 경제 분야: 4대 과제, 24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4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2년) 총 24개 성과지표 중 달성 17개, 일부달성 5개, 미달성 2개, 통계치 미집계 0개
(23년) 총 24개 성과지표 중 달성 17개, 일부달성 4개, 미달성 2개, 통계치 미집계 1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경제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2년			'23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17	5	2	17	4	2
6.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			○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	○		○	○	
	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			○		
	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 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	○		○	○	
7.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1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의 성장을 도모한다.	○			○		
	32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창의·혁신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33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		
	34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	
	35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			○	
	3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					○
	37 서울시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입안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		○	○		○
8. 친환경적이고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38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		통계치 미발표	통계치 미발표	통계치 미발표
	39 미래 기술 기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		
	40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			○		
9.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4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중위소득 하위 43%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			○		
	42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			○		

4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	
4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			○	

- 경제 분야는 4대 과제, 18개 이행과제와 24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개 성과지표 중 2022년은 달성 17개, 일부달성 5개, 미달성 2개로 71%의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2023년 역시 달성은 17개로 71%의 달성률을 보였으나 일부달성이 4개로 감소하고 미달성이 2개가 되었다.
-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도가 한 단계씩 하락한 이행과제 및 세부사업은 총 1개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은 달성도가 두 단계 하락하였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사업은 실적치 자체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잡게 되어 달성률이 전년의 116.4%에서 94.1%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운영의 달성률은 2022년에는 105%였으나 2023년에는 38.2%로 대폭 하락하였다.
- 반면,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 정도가 일부달성에서 달성으로 개선된 세부사업은 2개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와 인권영향평가 사업이다. 또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사업은 미달성에서 일부달성으로 한 단계 개선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9개 성과지표는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률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개 지표는 유지, 10개는 달성률 감소추세를 보였다. 감소추세를 보인 10개 사업 중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사업과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을 제외하고는 2022년, 2023년 두 해 모두 목표치 달성도는 달성 또는 일부 달성으로 변함이 없었다.
- 관광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사업과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은 계획의 미검토 및 데이터 미비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 「6.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과제는 총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22년에는 달성이 5개이고 일부달성이 2개였으며 2023년도 달성 5개, 일부달성 2개로 달성률은 동일했다. 다만 2022년에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가 일부달성이었고 2023년에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가 일부달성으로 일부달성한 사업이 달랐다.
- 「7.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과제는 총 9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 성장 도모

등 5개 이행과제는 2022년, 2023년 모두 달성하였으나, 청년 실업을 감소 과제는 일부달성이었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정적 노동환경 과제는 미달성으로 달성도가 하락하였다.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과제는 전년도에는 미달성이었으나 2023년에는 일부달성으로 달성도가 상승하였다.

- 「8.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과제는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된 1개의 성과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성과지표는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9.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과제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 및 확대하는 등의 4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에는 인권영향평가제도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달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모든 사업에서 달성률 100%를 보였다.

3.1.3. 괄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 환경 분야: 5대 과제, 31개 세부목표(이행과제), 32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2년) 총 32개 성과지표 중 달성 24개, 일부달성 7개, 미달성 1개, 통계치 미집계 0개
(23년) 총 32개 성과지표 중 달성 22개, 일부달성 7개, 미달성 2개, 통계치 미집계 1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환경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2년			'23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24	7	1	22	7	2
10.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45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항목을 강화한다.	○			○		
	46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			○		
	47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			○		
	48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			○		
	49 한강 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 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		○		
	50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			○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생활화 지원	51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		
	52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통계치 미발표	통계치 미발표	통계치 미발표
	53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			○		

	54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				○	
	5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				○	
	56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지원한다.	○				○	
	57	시민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 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			○	
	58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	
	5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자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				○	
12.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조성	60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				○	
	61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				○	
	62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				○	
			○				○	
	63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			○	
	64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				○	
65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		
13.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66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				○	
	67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				○	
	68	한강이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한다.	○				○	
14. 도시 내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 다양성 증진	69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				○	
	70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				○
	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등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				○	
	72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			○
	73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				○	
	74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				○	

- 환경 분야는 4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수인 5대 과제, 30개 이행과제와 32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개 성과지표 중 2022년은 달성 24개, 일부달성 7개, 미달성 1개로 75%의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2023년은 달성 23개, 일부달성 6개, 미달성 2개로 72%(통계치 미집계 제외)의 달성률을 보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달성률이 각각 81%, 75%, 78%, 72%임을 생각할 때 목표 달성률이 미세하게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도가 달성에서 일부달성 또는 미달성으로 하락한 성과지표는 총 3개로,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이수자 수,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가 이에 해당한다. 3개의 사업 모두 2022년 100% 이상 목표치 달성에서 2023년 부분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일부달성으로 하락하였다.
-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치를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야생생물 증식 수 지표이다. 이는 2022년에 양서류 증식기관인 서울대공원 증식장이 공사를 시작하여 실적이 감소한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해 모두 목표치를 미달성한 지표는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차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반면,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 정도가 개선된 성과지표는 한강숲 조성, 온실가스 배출량 2개 지표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서울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이 돋보인다.
- 달성률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률 증가 추세를 보인 성과지표는 7개이며, 12개 지표는 유지, 13개는 달성률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감소추세를 보인 13개 지표 중 2022년, 2023년 두 해 모두 달성 또는 일부 달성으로 달성도 결과는 변함이 없었으나, 달성률 추세는 하락한 사업은 총 9개이다. 특히,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과제의 경우 2개의 성과지표가 2022년과 2023년에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추세가 하향으로 나타났다. 향후 목표를 미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제 전반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과제별로 살펴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과제는 총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022년 한강 숲 조성 성과지표 1개, 2022년과 2023년 자연형 호안 복원 성과지표 2개가 일부 달성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표는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매우 높은 달성도를 나타냈다.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과제는 총 9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에는 9개 이행과제 중 8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녹색제품구매율 1개 지표만 일부달성하여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2023년에 들어서면서 7개의 성과지표(미집계 2개를 제외) 중에서 4개의 성과지표가 목표 달성을, 3개의 성과지표가 일부달성하였다. 2022년 대비 2023년의 목표 달성률이 하향 추세인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과제에 대한 관심과 실적달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과제는 7개 지표 가운데 4개 지표만 2022년, 2023년 모두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에너지 자립마을 수, 센터 방문객 수의 2개 성과지표의 경우 2개년 모두 목표를 일부달성 하였는데 목표 달성 수준이 71.1~87.7% 수준으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의 경우 유일하게 2022년에 달성에서 2023년 일부달성으로 전환되었는데 서울시의 글로벌 위상을 볼 때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과제의 경우 모두 목표를 달성하여 높은 달성률을 보인 사례이다. 다만,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횟수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를 2022년, 2023년 각각 1회로 설정하여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 달성률이 각각 1,000%, 600%가 나왔다는 것은 목표설정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과제의 경우 6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2022년, 2023년 모두 4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산불 피해면적, 야생생물 증식 수 2개의 성과지표의 경우 2022년, 2023년 모두 미달성 또는 일부달성을 보였는데 향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표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3.1.4. 함께 만드는 서울(협력 분야)

- 협력(거버넌스) 분야: 3대 과제, 24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4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2년) 총 24개 성과지표 중 달성 16개, 일부달성 5개, 미달성 3개, 통계치 미집계 0개
(23년) 총 24개 성과지표 중 달성 15개, 일부달성 5개, 미달성 3개, 통계치 미집계 1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협력(거버넌스)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세부목표 (이행과제)	'22년			'23년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16	5	3	15	5	3
15. 시민 모두가	75 서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 부담	○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가능한 주택의 확충을 통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76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통계치 미발	통계치 미발표	통계치 미발표
	77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		
	78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		○
	79	빈곤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재난 시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			○		
	80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				○	
	81	공원녹지서비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			○		
	8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			○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83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			○		
	84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			○		
	85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 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			○		
	86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속적 고액 채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			○		
	87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한다.	○				○	
	88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			○	
	89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		○
	90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며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 ○			○ ○		
91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		
17. 지속가능 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92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를 강화한다.	○			○		
	93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			○		
	94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			○		
	95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			○	
	96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			○		
	97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		○

- 협력분야의 이행계획은 3개 과제, 24개 세부사업, 24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개의 성과지표 중 2022년도 달성된 것은 16개, 일부달성은 4개, 미달성은 3개, 미발표 1개로 집계되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체납징수 강화,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등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며,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시민참여예산제 등이 미달성이었다.
-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도가 달성에서 일부달성 또는 미달성으로 하락한 이행과제 및 이행사업은 총 2개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사업,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사업은 2023년은 94.7% 달성하였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은 97.9%에 근접한 우수한 달성도 수치를 보였다.
- 반면,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 정도가 개선된 이행사업은 1개로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96.3%의 달성률에서 2023년 100%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목표치대로 달성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8개 성과지표는 2022년 대비 2023년 달성률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4개 지표는 유지되는 추세였으며, 8개는 달성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감소추세를 보인 8개 사업 중 2022년, 2023년 두 해 모두 목표치 달성도가 일부달성 또는 미달성인 이행사업은 3개이나, 2022년에는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2023년에는 일부달성한 이행사업은 2개이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은 2022년도에는 목표치를 40% 달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20%로 달성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의 경우도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치를 미달성하였으나, 달성 추세를 보면 2022년 4.5%에서 2023년 15.9%로 달성률은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절대적인 달성률은 너무 낮은 추세를 보였다.
- 과제별로 살펴보면, 「15.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과제는 총 8개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이행과제는 2022년, 2023년 모두 100% 이상의 우수한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이행과제는 2개년 모두 일부달성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광역체제와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제 구축 관련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통계치 미집계되었다.
-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과제는 총 9개 이행과제, 10개 성과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에는 7개의 지표가 목표치를 100% 이상 충족하였으나, 2023년에는 6개의 지표만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이 중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치를 100% 달성한 이행사업은 6개였으며, 나머지 4개의 경우 일부 달성 또는 미달성이

발생하였다.

- 「17.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 과제는 총 6개의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담고 있다. 이 중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이행사업은 4개였으며, 나머지 사업 2개의 경우 2개년 모두 일부달성 또는 미달성이었다.

3.2. 향후과제

본 절에서는 2장과 3장 1절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수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새로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분야별로 정리한다.

- (부적합한 성과지표) 이행과제나 이행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는 수정한다. 설정된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가 이행과제 내용 및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재설정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한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성과지표는 적절하나 2030년 목표치를 기달성하였거나 목표가 이행과제에 비해 미약할 경우 목표를 상향시킨다.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이 적절하고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에도 이행과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이행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한다.
- (비현실적 목표치) 실적치와 2030년도 목표치의 괴리가 너무 큰 비현실적인 목표치는 재조정한다.
- (중복지표) 이행과제는 다르지만,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가 중복되는 경우 이행사업과 성과지표를 검토한 후 재조정한다.
- (기타) 성과지표 관련 기타 의견

3.2.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사회 분야에서 기본 방향별 수정·보완할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적합한 성과지표)
 - 3번 금융·복지 상담 건수는 2022년 29,927명, 2023년 32,907명으로 2030년 26,000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는데, 단순한 상담 건수 보다는 실제로 금융·복지 혜택을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하거나(예시: 금융·복지 연계 서비스 참여자 수), 또는 이를 확대하여 금융·복지뿐 아니라 고용까지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는 성과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예시: 금융·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참여자 수).

- 5번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제7조, 제8조)과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횟수(제4장)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가 명문 규정한 사항으로서, 자치법령에 따른 기속된 연차별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적절한 성과지표이겠으나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적인 성과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아,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개수’(제11조)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10번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은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이라는 2030년까지 단순한 훈련 운영 이외에 성과목표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폐지 등 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13번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행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중상자 수를 추가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폭넓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 15번 서울시 보건지소 수는 2022년까지 이미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보건지소 운영보다는 서울시 보건지소 만족도(또는 공공보건 의료 만족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16번 중독질환 예방교육 지원 건수는 다른 지표와 다르게 2022년, 2023년 실적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성과지표로서 안정적이지 않으며, 2030년 성과목표치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폐지 등 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24번 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는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는 이행과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더욱 적극적인 대안 지표개발이 요구된다(예시: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 수 감소율, 여성 1인 가구 폭력 사건 수 감소율).
- 18번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는 서울시 인구 대비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증가율로, 19번 기술교육원 교육 수수료율은 서울시 인구 대비 기술교육원 교육 수수료인원 증가율로, 23번 성별영향평가 추진 건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활용도로 성과지표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1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2030년 2.7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2년 4.4%, 2023년 4.5%를 달성하여 2030년 목표치 상향이 필요하다.
- 3번 금융복지 상담 건수도 2030년 26,0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2년 29,927명, 2023년 32,907명을 달성하여 2030년 목표치 상향이 필요하다.
- 6번 임신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은 2022~2030년까지 연간 목표가 5,500명으로 매년 동일하나, 2023년 이미 5,536명을 달성하여 2030년 목표치 상향이 필요하다.

- 12번 중독자 사례관리 건수도 2030년 5,000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5,976건을 달성하여 2030년 목표치 상향이 필요하다.

○ (비현실적 목표치)

- 4번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2030년 목표치(70,000명)와 2023년 실적치(21,672명) 차이가 매우 크다. 긴급복지라는 특성상 재난이나 사회 불안 요소의 발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목표치 7만 가구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약 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인다는 목표에 적합하도록 방향성만 제시하거나 연간 2% 증가 수준에 맞추는 것을 권한다.

※ (연도별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2020년 27,236명, 2021년 22,170명, 2022년 20,841명, 2023년 21,672명

- 20번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는 2020년 이래 실적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인구 대비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대체하는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22번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교육 이수자, 25번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복지표)

- 8~9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은 이행과제-이행사업-성과지표 모두 2개를 1개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이행과제 통합 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 사망률과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

○ (기타)

- 2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 인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 완화 및 예산 증가 등의 변수에 따라 당해연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실적치 또한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하는 등 서울시 자체의 예산 편성 및 소득 기준을 마련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2.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 기본 방향별 수정·보완할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적합한 성과지표)

- 28번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이용률 8% 달성은 분모가 전력이므로 전력 소비도 연계되어 목표

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수정 혹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 30번 녹색기술 R&D, 7대 녹색산업 증진은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다른 목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1번 이행과제는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는 7번 과제의 본질과 연관성이 의문시된다. 파트너십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다.
- 34번 성별임금격차 개선은 현재 성평등 임금 컨설팅 기관수로 측정되는데, 컨설팅 기관수는 해당 지표를 적절히 반영하는 측정이 아니다. 오히려 컨설팅 건수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37번 관광 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는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이행사업과 성과지표는 폐지해야 한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40번 서울형 R&D 지원사업, AI 인재양성 역시 2030년 목표치를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모니터링의 불필요성이 제기된다.
- 43번 인권영향평가 사업은 실행 건수가 적고 현재도 유지 수준이므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성이 의문이다.

○ (중복지표)

- 32번 서울형 신성장 기업 육성 사업은 39번 이행과제의 이행사업 및 성과지표와 동일하여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 33번은 강소기업 지원은 두 번째 성과지표인데, 개념상 32번 과제의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성과 개념이 중복되므로 폐지해도 될 것 같다.
- 38번은 대중교통에 관한 성과지표로 도시/공간을 다루는 11번 과제에서 다루는 것과 중복된다. 경제보다는 도시/공간과 더 유관하므로 경제에서는 없애고 도시/공간에서 다루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 41번은 빈곤에 집중된 1번 과제와 더 맥락이 유사하다. 따라서 과연 이 과제를 9번 과제에서 다룰 것인지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3.2.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환경 분야에서 기본 방향별 수정·보완할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적합한 성과지표)

- 46번 CSOs 저류조 설치 지표의 경우 신규로 CSOs 저류조가 설치될 때까지 특별한 노력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지 수준의 목표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표를 폐지하거나, 하수관 정비율로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 47번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 지표의 경우, 서울시 건물수 대비 목표가 매우 적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해당 지표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에 반영하여 의무화하고 폐지하거나 물 재이용률(%)과 같은 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50번 민간단체 지원 수 지표의 경우 2024년 예산이 모두 삭감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본 성과지표는 예산을 수반하는 지표로서 달성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51번 서울시 SDGs 체계이행 지표는 성과를 점검하고 지표를 관리하는 심판의 역할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그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에 지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 56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 수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크게 초과되어 목표설정에 대한 합리성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적추세 분석선을 반영하거나 3개년 평균의 110~120% 등 공격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 59번 친환경금융고지정기준 성과지표의 경우, 이미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시금고를 지정,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과지표에서 제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61번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지표에서 정의하는 법정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반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한다. 또한 각 법정계획에 이미 기후변화대응 부문의 반영이 많이 되어 목표를 기달성하였으므로 지표에서 제거되는 것이 타당하다.
- 64번 기후변화기금 지출사업 편성규모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가 서울시의 예산규모대비 너무 작게 설정되어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를 기원해 본다.
- 71번 자연생태 보호지역 증가면적은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300% 이상의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성과가 100% 내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72번 야생생물 증식 수 성과지표의 경우 2022년 서울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도 언급했지만, 추가로 기후변화와 도시발전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서울시 보호종 식물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한다.
- 73번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면적 지표의 경우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높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목표 달성이 상향 추세임 점, 2020년 이후 목표가 꾸준히 1백 만m²로 고정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74번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성과지표의 경우 이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시 평가 기준에 생물다양성 증진이 포함되어 있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지표는 수명이 다하였으므로 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목표유지수준)

- 67번 수질오염 총괄관리 지표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목표와 실적이 유사하여 유지 수준의 목표로 별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의문이 있다. 따라서 해당지표를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 68번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횟수 지표의 경우 매년 목표도 1건으로 목표의 공격성이 매우 낮고, 연구기관 교류협력 횟수 지표가 통합물관리와 무슨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해당 지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69번 나무 식재량 지표의 경우 최근 2년간의 목표와 실적이 유지관리로 이 지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목표를 계량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지표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2.4. 함께 만드는 서울(협력 분야)

협력 분야에서 기본 방향별 수정·보완할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협력 거버넌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 수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에서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달성률이 100%인 것은 긍정적이거나,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성과목표가 일부달성이고, 시민참여예산제가 미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 거버넌스 분야에서 기본 방향 관련 수정·보완할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성과지표 성과목표 재검토)

- 이행과제 78번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는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성과지표인 미래유산 선정 건수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미달성하였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성과지표 또는 성과목표의 재설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이행과제 89번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 강화의 성과목표 달성은 2022년은 4.5%, 2023년은 15.9%로 현저하게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면 이행과제의 재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이행과제 97번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목표는 2022년, 2023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미시행되어 미달성하였다. 본 이행과제는 사실상 외교 및 정무적 차원의 환경변화에 따라 성과 달성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이행과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계속 현재의 이행과제를 지속할 경우,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소극적 목표치 및 미달성 목표)
- 이행과제 92번 해외 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 강화는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치를 높은 비율로 초과 달성하여 목표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의 성과지표인 해외사업 신규 수주도 2023년의 실적치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였으므로 목표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일부달성 미달성 사업에 대한 주의 관심 필요)
- 이행과제 80번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과제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사업의 성과지표인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3년 목표치를 $19\mu\text{g}/\text{m}^3$ 로 낮추었으나 실적치는 오히려 $20\mu\text{g}/\text{m}^3$ 으로 상승했다. 초미세먼지 감축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행과제 88번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 확대 과제의 시민·주민감사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행과제 91번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하향 추세이므로 각 자치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결어

전례 없는 기후위기는 인류 모두의 생존과 안녕에 관한 것이기에 지속가능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는 어느 특정 인물, 단체, 또는 국가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모든 나라의 국민,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국제선도 도시인 서울시 역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시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지 이미 십여 년 이상 지났다. 특히 2017년에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9년에 들어서면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제 및 국가적 목표 체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작성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과 이행계획(2020~2024년)’을 2020년에 수립하였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전과 4대 전략, 17대 과제, 97개 이행과제, 106개 이행사업과 108개 성과지표를 담고 있는 방대한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 제1항은 시장이 2년에 한 번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분과별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이행계획의 2022년과 2023년 실적을 평가하였다.

97개 이행과제와 연결된 108개 성과지표 중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의 비율은 2022년과 2023년에 모두 70% 수준으로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야별로 세분하여 볼 경우도 사회 분야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64%와 71%, 경제분야가 71%와 71%, 환경 분야가 75%와 69%, 마지막 협력(거버넌스) 분야가 67%와 63%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표의 달성률 약 70%는 이행계획 수립 이후 처음 시행된 2020년과 2021년 실적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목표 달성률이 70%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이 일부 사업의 실적 부진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이전 연도 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한 사업이 차년도 평가에서 일부달성이나 미달성으로 또는 반대로 미달성 사업이 달성이나 일부달성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혼재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달성률이 70% 안팎에 머물렀다.

이행계획이 2020년에서 2024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과 2023년은 사업의 고도화 단계로 성과가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적인 사업 진행의 모습은 사업 초기에 성과가 부진한 세부과제가 있더라도 연차가 더해질수록 목표치를 결국 달성하는 세부과제가 늘어나고 한 번 목표치를 달성한 세부과제는 안정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여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는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사업실적에 명확한 개선 추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소 주춤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은 엄중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plan)과 실행(do)에 못지않게 확인(check)과 조치(act)가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각 이행과제의 역할을 고려하여 사업실적과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세부사업이나 지표에 대한 의견을 (부적합한 성과지표),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비현실적 목표치), (중복지표),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2020년과 2021년을 대상으로 했던 제2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도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었으나 과연 어떠한 의견이 얼마나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제3차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담고 있는 여러 의견도 보고서상의 의견으로 남지 않고 앞으로 이행계획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추진 및 평가 체계와 관련하여 이행사업별 중요도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 첨언하고자 한다. 현행 97개 이행과제 또는 106개 이행사업은 이행사업별로 매칭된 1개 또는 2개의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로 평가되며 전체 사업의 달성률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의 경중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그러나 사업별 내용을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같이 서울시 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같이 서울시 내부의 행정 사항에 관한 것까지 그 대상과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 사업별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나 사업 대상의 범위 등에 따른 사업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별첨 1. 제5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역할	성명	분과	소속	비고
위원장	김태영	협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부위원장	송인한	협력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 국제협력센터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경제분과 위원장	곽주영	경제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사회분과 위원장	정연아	사회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유아교육)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환경분과 위원장	조영준	환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협력분과 위원장	사득환	협력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지속위 위원	문병걸	경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혜원	경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파	경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석용찬	경제	MAINBiz(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박유경	경제	(주)굿모니터링 대표이사	
	정수미	사회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사무국장	
	정미애	사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장	
	유민상	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여정	사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연	사회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송수종	사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연구개발팀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권현한	환경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유종익	환경	주식회사 솔루션스 기후전략본부 본부장	
	최재동	환경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김화진	환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송지현	환경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배덕효	환경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박선아	환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임수연	환경	(주)그린패키지솔루션	
	구철희	협력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박차옥경	협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		
이창용	협력	SK증권 ESG 부문장		